「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외교사업 추진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사례

전주 세계문화주간

전 라 북 도
전 주 시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외교사업 추진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사례

전주 세계문화주간

◇ 개 요

- 사 업 명 : 전주세계문화주간
- 추진기간 : 2016~2019(매년)
- 소요예산 : 연 1억 정도(시 및 각 국 대사관 등 예산분담)
- 참여국가 : 4국(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 참여인원 : 약1만 6천 5백명
- 참여아티스트 : 108명(플라멩코, 힙합, 우쿨렐레, 영화분야 등)
- 업무분장 : 예산, 행정, 아티스트 초청 등 각 국과 공동진행

◇ 추진의의

- 지자체에서 드물게 추진하는 각국과 파트너십 통한 외교사업으로 **지방분권 강화**
- **예산,** 행정, 아티스트 초청에 이르기까지 **각국과 공동진행**
- 글로벌서포터즈 등 활용으로 **시민 참여 강화**
- 각국 및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협력으로 **상호우호관계 증진**
- 사업전반에 글로벌전주서포터즈 등 활용으로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부가적 홍보기회 창출(영국항공 전주홍보 건 등) 등**

□ 그간 추진사항

연 도	파트너	주요프로그램
2016 **프랑스** **문화주간** 5.6~15 3.2천명	주 한 프랑스 문화원 아시아나 등	▸한국전쟁참전 UN프랑스대대 **사진전**/여명카메라박물관 ▸한불**자수교류**전 「생활속의 자수소품전/전통문화전당 ▸**한식-프랑스와인** 행사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국제한식조리학교 ▸**베르사유바로크음악센터 내한공연** 「샤르팡티에 신성한 이야기」/소리문화의전당 ▸**이다도시 초청 프랑스 동화여행, 감성교육** 강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영 국** **문화주간** 5.10~14 4천명	주 한 영 국 문화원, 시공사, 립 톤	▸**오프닝**「마이클윈터바컴 영화감독 초청 리셉션」 ▸**리치매코어 초청 전시 및 워크숍** 「페이퍼커팅아트로 전 세계 랜드마크를 변화시키다」/교동아트 ※페이퍼포토아티스트로 전주 아트작업 후 전주글로벌홍보효과 거양 ▸영국 **서커스단 공연** 「더 휠하우스」/경기전광장 ▸제인오스틴 서거 2백주년 기념 **북&필름 콘서트** 「영화로 만나는 제인오스틴」/여명카메라박물관 ▸영국 **재즈밴드 롤러트리오 공연** 「영국재즈, 한걸음 더 가까이」/풍남문광장
2018 **미 국** **문화주간** 8.6~10 4천명	주 한 미 국 대사관	▸**오프닝리셉션**/국립무형유산원 ▸**사진전시** 「제레미 믹 초청사진전」/저널리스트 ▸**바베큐파티&영화의밤**/교동아트 잔디마당 ▸**우쿨렐레공연** 「호노카&아지타 하와이 뮤지션」/소리문화관 ▸프리티빅 무브먼트**「힙합댄스 공연」**/국립무형유산원 ▸**아메리칸 푸드트럭**/풍남문광장, 전북대 구정문 ※기타 시민참여 워크숍 강화/사진, 우쿨렐레 등
2019 **스 페 인** **문화주간** 6.14~20 5.3천명	주 한 스페인 대사관 라리가 관광청 상공회의소	▸**오프닝리셉션**/전주향교(MC 손미나) ▸**문화체험프로그램** 「월드타파스데이」/세병호 - 스페인음식, 와인, 축구, 특산품 등 체험 ▸**스페인문화공연** 「스페인 재즈&플라멩코」/소리문화관 ▸**스페인영화페스티벌**/디지털독립영화관 - 국내 일반영화관 미개봉작 ▸스페인 순례길 **사진전**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의 동시대적 경험/전동성당 야외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개요 ····· 2

Ⅲ.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3

Ⅳ. 그간 추진사업 ····· 6

Ⅴ. 시사점 ····· 14

Ⅵ. 향후 추진방향 ····· 16

<붙임자료>

1. 관련사진(17~24)

2. 언론보도자료(25~33)

Ⅰ. 추진배경

□ 시민들과의 전주시 국제화 결실 공유 필요성 증대

○ 과거 국제교류가 단순 행정간의 교류, 민간교류, 외빈초청행사라는 인식에서 탈피, 그간 추진해왔던 국제교류와 해외네트워크 등 **전주시의 국제화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해소 필요

○ 전주시는 **지역문화지수 1위인 도시**로, 한국 문화를 이끌어 가는 '문화수도', '한국전통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지수가 높은 반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한공연 등 **해외문화향유기회가 적어 문화적인 갈증해소 필요**

□ 외신 등 전 세계 주목에 따라, 해외홍보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필요

○ 세계최고 여행매거진 론리플래닛, 미국 CNN, 영국 더 가디언스, 호주 트레블러 등 각국의 외신 및 여행미디어 등에서 주목하여 **해외홍보 적기**를 맞아 해외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필요

→ 각 국과 **파트너십을 위한 관문이자 교두보인 주한공관 활용**

□ 공공외교(문화외교) 중요성 강화에 따른 해외홍보 적기

○ 외교부 주도의 **공공외교(소프트 파워인 문화 활용) 추진**으로, **문화, 역사유산이 풍부한 우리시의 해외홍보 적기**

□ 한옥마을 컨텐츠에 새로운 문화적 요소 가미

○ 한옥마을이란 전통적 컨텐츠에서 이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통해 전주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 제공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세계문화주간』

○ 사 업 비 : 100백만원 정도(시비 · 각국 대사관 예산부담)

○ 사업대상 : 주한 각국 대사관 및 문화원 등

○ 참가대상 : 전주시민 및 전주방문객 등

○ 일　　정 : 매년 5~6월 경 1주 정도

○ 장　　소 :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일원

○ 사업내용

- 개막식 등 활용 지역 예술가 초청 쇼케이스를 통한 전주문화 · 예술인 해외홍보 및 해외공연 등 초청발판 마련
- 해외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 지역주민 · 예술 커뮤니티와 해외예술가의 콜라보(협연 등)
- 자매(우호)도시, 기타 외국 예술가 및 문화인 초청 공연, 전시 등
- 각국 대사관 · 문화원 · 아티스트 초청 전주홍보 및 네트워크 확보 등

○ 주최·주관 : 전주시 · 각국 대사관 혹은 문화원

○ 후　　원 : 각국 상공회의소, 기업체 등

○ 사업준비 로드맵

국가선정	▶	사업기획	▶	해당국 공관,문화원 협조요청	▶	사 업 브리핑	▶	세부계획 아티스트 초 청	▶	문화주간 개 최
전년도 초		전년도 초		전년도 중-말		전년도 말		당해년 4월		당해년 6월

파트너국가('16~'19)

◇ 2016 프랑스(주한프랑스문화원 등)
◇ 2017 영국(주한영국문화원 등)
◇ 2018 미국(주한미국대사관 등)
◇ 2019 스페인(주한스페인대사관 등)

Ⅲ.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주한대사관 · 문화원 등 대상 전주 홍보 및 네트워크 확보

○ 세계문화주간 추진 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시 주요정책, 산업, 문화 등 홍보를 목적으로 각 국 대사관, 문화원 등 관계자 전주초청

	
외교부장관 및 주한대사일행 초청행사('18.9월) 외교부장관 및 이탈리아,그리스 등 주요국대사 등 50명	각 국 대사 초청행사 추진(수시) 주한스페인대사 초청('19.3월) 등

□ 지역예술가 쇼케이스를 통한 전주문화 · 예술인 해외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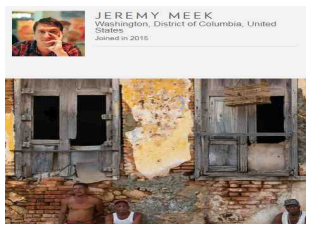
○ 전주는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만들어진 무형문화재 보유수가 48개로 전국평균 2.3명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

○ 예술도시 명성을 시민들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개막식 등에 명창, 전주시립국악단 등 유명인 초청공연 추진

	 
전주스페인문화주간 개막식('19.6월) 전주시립국악단 초청 개막공연	전주미국문화주간 개막식('18.8월) 판소리 무형문화재 초청(애국가 판소리 공연)

□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예술가 초청 공연 등 문화향유 기회마련

○ 공관 및 문화원과의 네트워크 확보로 검증된 아티스트 초청을 통한 품격있는 문화사업

<table>
<tr>
<td></td>
<td></td>
<td></td>
</tr>
<tr>
<td>영국문화주간('17.5) 롤러트리오 재즈공연
머큐리상(영국음악계최고권위) 후보</td>
<td colspan="2">미국문화주간('18.8월) 제레미믹 사진전
내셔널지오그래픽,NY 타임즈 등</td>
</tr>
</table>

□ 해외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추진

○ 전주시민 및 방문객들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로 시민들의 글로벌사업참여 강화

<table>
<tr>
<td></td>
<td></td>
</tr>
<tr>
<td>전주미국문화주간 댄스워크숍('18.8월)</td>
<td>전주미국문화주간 우쿨렐레 워크숍('18.8월)</td>
</tr>
</table>

□ 지역예술커뮤니티 및 동아리와 해외예술가 콜라보(협연 등)

○ 외교사업 기간 중 초청공연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커뮤니티들의 공연기회 제공

○ 해외예술가들의 전주를 위한 작품전시, 홍보콜라보레이션 등 구성으로 홍보강화

<table>
<tr>
<td rowspan="2"></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스페인문화주간 스페인재즈공연('19.6월)
'전주 가스파초 이야기'</td>
<td colspan="2">영국문화주간 리치맥코어 콜라보 전주
전주주요 랜드마크X리치매코어(한옥마을 등)</td>
</tr>
</table>

□ 이전 공공기관 활용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 홍보

○ 장소 선정 시, 이전 공공기관(국립무형유산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및 시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핵심공간(팔복예술공장-전주시 도시재생사례)을 활용하여 시민들에 공공기관이전 및 도시재생 등 핵심사업 홍보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프랑스문화주간('16.5월) 동화여행감성교육
이다도시초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td>
<td>미국문화주간('18.8월) 제레미믹전시
팔복예술공장 전시</td>
</tr>
</table>

□ 글로벌서포터즈 등 시민네트워크 활용

○ 국제행사 경험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활용 사업추진

<table>
<tr>
<td></td>
<td>
</td>
</tr>
<tr>
<td>영국문화주간('17.5) 휠하우스 퍼포먼스
글로벌전주서포터즈(대학생) 자원봉사</td>
<td>프랑스위크('16.5월) 한식와인행사
국제한식조리학교 학생협조</td>
</tr>
</table>

Ⅳ. 그간 추진사업(2016~2019)

□ 2016「프랑스위크」

○ 추진배경 :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및 전주-베르사유 우호교류 증진

○ 일　　시 : 2016. 5. 6～15(10일간)

○ 장　　소 : 전주시 일원(전주시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 참가인원 : 3,200여명

○ 주최·주관 : 전주시, 전북대인문영상연구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여명카메라박물관

○ 후　　원 : 프랑스문화부, 주한프랑스대사관, 엥스티튜 프랑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장소	주요내용
한국전쟁관련 사진전시회	5.6～12 카메라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UN프랑스대대」 ▸한국전쟁당시 UN의 프랑스대대의 참전사진 27점 및 롤업배너 3개 배치
한-불 자수교류전	5.6～15 전통문화전당 온브랜드관	한-불 자수 교류전「생활 속의 자수소품 전」 ▸한국과 프랑스의 자수 소개(전북무형문화재 자수장 故강소애 이수자 전경례, 이소프랑스자수대표 강이소) ▸작품전시 및 일반인대상 미니워크샵을 통한 작가의 직업관, 작품소개 등
전주한식과 프랑스와인 페어링	5.11 국제한식조리학교 도리상영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 ▸ 국제한식조리학교 임채홍교수와 와인 소믈리에인 장 폴 보레즈가 선보이는 전주한식과 프랑스와인. 다양한 프랑스와인과 어울리는 한식 칵테일 푸드 등을 전국의 소믈리에, 식음료 전문가, 언론 등을 초청하여 홍보
베르사유음악센터 내한공연	5.12(목)19:30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CMBV(베르사유 바로크음악센터)「샤르팡티에의 신성한 이야기」 ▸ 전주-베르사유 우호교류 기념 추진으로, 베르사유의 상징 바로크음악센터 내한공연 추진
프랑스식 교육특강	5.13(금)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프랑스 동화여행, 감성교육」 ▸ 이다도시 초청 프랑스 동화구연(미운아기오리) 및 프랑스 감성교육법 부모교육 특강

○ 추진결과

- 당초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진행 계획된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의 내한공연은, 우리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전주시의 문화를 홍보를 위해 프랑스위크로 사업이 확대 추진됨
-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라 볼 수 있는 전주한식과 프랑스와인의 페어링, 또한 한국에서 유명한 프랑스 방송인 1세대라 볼 수 있는 이다도시를 초청한 교육행사 등은 전주에서 접하지 못했던 외국의 교육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특히 베르사유음악센터는 2015년 전주와 베르사유의 교류추진으로 상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한국의 자수명장과 프랑스자수명장의 조우는 매우 매력적
- 장소섭외 또한 단순 행사장이 아닌 주제와 연관성 있는 공간 (한국 출판문화산업 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 이후,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필요했던 공공기관에 주민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 2017「영국문화주간 : 문화강국 영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만나다」

○ 일　　시 : 2017. 5. 10(수)~14(일)/5일간

○ 장　　소 : 전주시 일원(전주시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 참가인원 : 4,000여명

○ 주　　최 : 전주시

○ 주　　관 : 전주시 · 주한영국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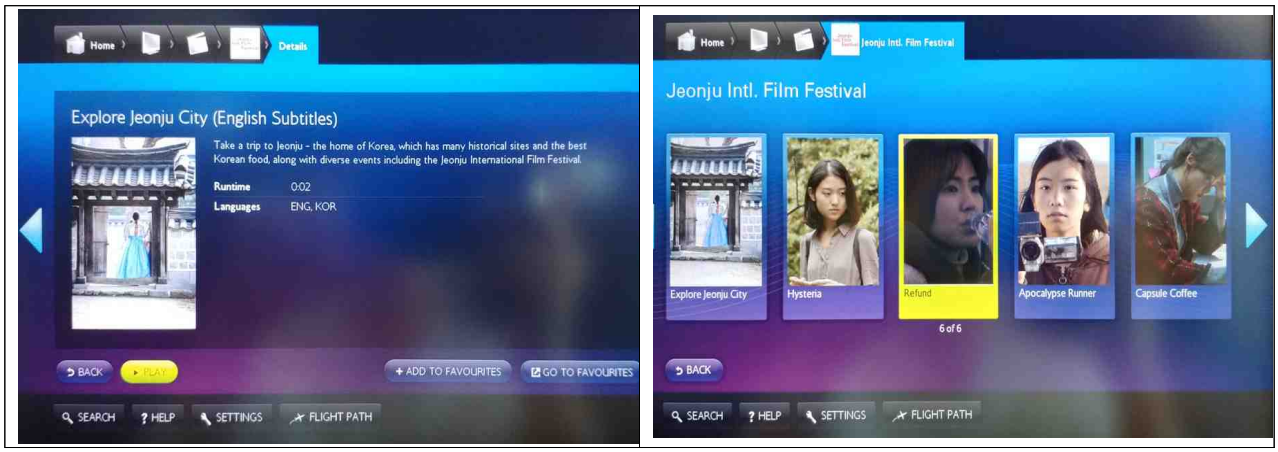
○ 후　　원 : 시공사 · 립톤 · 교동아트

○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장소	주요내용
리치맥코어 사진전 및 워크숍	5.10(수)~14(일) 교동아트	「페이퍼 커팅아트로 전 계 랜드마크를 변화시키다」 ▸ 세계의 랜드마크에 본인의 작품(종이작품)을 접목시켜 소개하여 CNN 등 세계적인 언론에 소개된 신예 아티스트로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 ▸ 전주방문 시 한옥마을 등 랜드마크 활용한 아트작품을 제작하여 상호콜라보 추진
아크로바틱 공연	5. 11(목) 한옥마을	「더 휠 하우스 : 굴렁쇠 안의 연인의 삶과 여정」 ▸ 영국의 창의적인 아티스트팀이자 서커스 극단아크로주 초청공연으로 굴러가는 바퀴안팎에서 두 남녀가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시대의 사랑과 공존을 이야기
북&필름 콘서트	5. 11(목) 여명카메라박물관	「영화로 만나는 제인 오스틴」 ▸영국여류작가 제인 오스틴 서거 200주년 기념 제인오스틴작품세계 북콘서트 ▸제인오스틴 소설 레이디 수잔을 원작한 영화상영
재즈밴드 내한공연	5. 12(금) 풍남문광장	「영국의 재즈, 한걸음 더 가까이」 ▸영국의 신예 재즈밴드(영국의 음악계 최고 권위의 상 머큐리 후보에 오름)인 롤러 트리오 초청공연 ▸시미언 달라스(싱어송 라이터) 찬조출연

○ 추진결과

- 영국문화주간은 전주시와 주한영국문화원이 공동주최주관한 사업으로 특히 2017-2018 한영교류의 해를 맞아, 거리상 어려운 영국의 다양한 현대문화를 선보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됨. 특히 구체적인 지식이나 이해도 없이 참석가능한 행사를 기획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였음
- 페이퍼아티스트 리치매코어와 **전주의 랜드마크관련 콜라보**를 통한 해외홍보가 가능하였으며, 특히 관련자료를 본 **글로벌카메라회사에서 전주사진 활용을 요청하여 또 한번의 홍보기회**가 됨. **세계적인 작가인 제인오스틴의 기념행사와 연결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였음**
- 시민들에게 생소한 영국의 팝과 재즈를 믹스한 공연은 전주의 랜드마크인 풍남문광장을 수백명이 가득 메울 수 있게 함
- 또한 영국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국항공과의 상호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주-영국항공 상호 콜라보를 올 2019년에도 추진 예정으로 전 세계의 영국항공 노선에서 9월 한달간 전주의 홍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5편이 상영되는 쾌거를 얻기도 함**



<영국항공 기내엔터테인먼트 소개>

□ 2018「미국문화주간 : 미국을 경험하다」

○ 일　　시 : 2018. 8. 6~10(5일간)

○ 장　　소 :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소리문화관 등 전주일원

○ 참가인원 : 4,000여명

○ 주최·주관 : 전주시 · 주한미국대사관

프로그램	일시/장소	주요내용
오프닝리셉션	8.6(월) 18:00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전주 미국문화주간 축하 개막식」 ▸주요VIP참석 미국문화주간관련 축하 리셉션 파티로 미국수출기업 등 초청하여 해외진출기회 모색
사진전시회 및 작가워크숍	8.7(화)~8.19(일) 팔복예술공장	「더 페이스 오브 어메리카 : 미국의 얼굴」 ▸뉴욕타임즈 등에서 포토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제레미믹의 전 세계의 소외계층의 사진을 담은 전시회 ▸대학신문방송학과, 사진작가협회등 참석 워크숍개최
BBQ클래스 무비나이트	8.7(화) 교동아트 잔디마당	「아메리칸 바비큐와 함께하는 무비나이트」 ▸미국정통BBQ소스 등 비법강좌 및 미국 요리관련 다큐상영(어글리 딜리셔스)
우쿨렐레공연 및 워크숍	8.8(수)~8.9(목) 소리문화관	「호노카와 아지타의 우쿨렐레 내한공연」 ▸하와이출신 우쿨렐레 아티스트들의 야외공연으로 전주우쿨라니 어린이 앙상블 찬조출연 ▸지역아동문화센터 및 중급레벨 우쿨렐레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개최 등
힙합공연 및 워크숍	8.9(목) 국립무형유산원	「프리티 빅 무브먼트 힙합그룹 내한공연」 ▸Big 사이즈에 대한 편견을 없애다.
아메리칸 푸드트럭	8.7~9 풍남문광장 전북대	▸미국식 스트리트푸드인 핫도그 등 선보임

○ 추진결과

- 미국 문화주간은 그 어느때보다 **대사관측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음.** 2016년부터 이어진 네트워크와 2017년도 대리대사의 전주초청행사를 통해 전주세계문화주간이 이전사업보다 사전에 준비됨
- 대사관의 **적극적인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문화의 용광로라 불리우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미국문화의 특징인 **문화적 다양성은 다문화, 외모지상주의 등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다른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았음
- 특히 전주시가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

□ 2019「스페인문화주간 : 올라, 에스파냐!」

○ 일　　시 : 2019. 6. 14~20(일주일간)

○ 장　　소 : 전주한옥마을, 세병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 참가인원 : 5,300여명

○ 후　　원 : 스페인축구라리가, 스페인관광청 등

○ 주최·주관 : 전주시 · 주한스페인대사관

○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장소	주요내용
개 막 식	6.14(금) 전주향교	「스페인주간 개막식」/스페인어사용국 대사초청 ▸전주 및 스페인 각 기관장 등 VIP참석 스페인공연, 스페인음식, 와인 등 ▸플라멩코, 재즈콘서트 아티스트 참여 공연
스페인 체험프로그램	6.15(토) 세병호 야생화언덕	「월드타파스데이」 ▸ 스페인레스토랑 요리사들이 준비하는 타파스코너로, 매년 서울에서 진행된 월드타파스데이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진행됨 ▸스페인축구 라리가, 한국외대, 하몬수입업체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스페인 문화공연	6.15(토) 소리문화관	「에밀리오 앙상블 & 포르타꼬네스 플라멩코」 ▸ 에밀리오 앙상블 공연(스페인의 재즈와 스토리텔링으로 전주만의 가스파초 이야기) ▸스페인정통플라멩코팀 포르타꼬네스 플라멩코 컴퍼니가 준비한 전주만의 솔로 플라멩코로 많은 호응을 얻음
스페인영화 페스티벌	6.15(토)~16(일) 독립영화관	「스페인영화페스티벌」 ▸국내 미개봉작 스페인영화 상영으로 스페인의 히치콕이라 불리는 감독의 작품 등 1990년대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 공포작 등을 상영
스 페 인 사 진 전	6.15(토)~20(목) 전동성당야외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의 동시대적 경험」 ▸스페인의 성지라 불리우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영화제에서도 소개된 마누엘 발카셀 작가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사진전으로 스페인순례길을 다녀와 본, 그리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함

○ 주요결과

- 작년에 이어 개막식을 통해 전주세계문화주간 의의를 소개하고, 아티스트들에 전주시 문화를 선보여 추후 지속적인 예술가들의 교류를 꾀하게 됨
- 특히, 전주의 향교 등 한옥마을 일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통해 **해외유명 아티스트들에게도 전주시의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됨
- 매니아층이 많은 스페인영화를 독립영화의 산실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성수기 시즌의 주말 관광객 입장율로 매우 호응도가 높았으며, **전주 이외 거주자들의 호응도 높아 전주를 영화의 도시로 홍보**
- 월드타파스데이의 경우 스페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하였으며, 매년 **서울에서만 하던 행사를 지방에서 최초로 시도하게 되어 전주시가 긍정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음. 특히 **스페인축구 라리가 등의 후원**으로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추진되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세병호라는 **장소선정으로 전주시의 중심에서는 벗어나나, 신도시를 소개하는데 의의**
-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전부터 일정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의사소통 강화**



Ⅴ. 시사점

□ 기초지자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주요사례

○ **그간 외교사업은 국가 對 국가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산업 등 기타분야와 달리 **외교업무는 기초에서 주도하기 어려웠음**

○ 전주시에서 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본 프로젝트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중앙정부의 힘이 아닌,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주도한 유례없는 사례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으며, 주한공관 또한 지방도시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가능

□ 국제화의 결과를 시민과 공유, 시민의 국제교류참여 강화 국제화마인드 함양

○ 그간 **국제교류사업**이 단순 해외기관방문, 해외인사들의 전주방문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실제 시민들이 우리시가 추진한 네트워크 및 **국제화의 결실을 공유하게 됨**

○ 검증된 예술공연 및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강화**

○ 특히, **세미나, 워크숍 등 참여와 더불어 각 글로벌서포터즈 등 자원봉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글로벌마인드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성있는 교류계기 마련 및 우호관계 증진

○ 거리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교류가 없는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시가 주최하는 외교사업으로 우리시를 소개하고 해당도시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그간 교류가 **소홀했던 지역과의 교류의 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됨

사례) 전주-미국 호놀룰루 2004년 우호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미국 문화주간 시 해당지역 우쿨렐레 그룹초청으로 교류재개 기틀마련

□ 전주시 글로벌브랜드의 세계무대 진출 계기마련

○ 뉴욕, 상해 등 각 국의 행정수도가 아닌 문화도시의 파워가 점차 강해지는 가운데,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모던한 한국이미지를 탈피, 한국의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는 전주라는 공식을 파트너국가에 전달

○ 특히, **해외진출의 교두보라 볼 수 있는 주한 공관을 활용**하여 한국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사업에 적극 동참시켜 '대한민국 문화수도'라는 글로벌브랜드 강화**

□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의 해외홍보기회 마련

○ 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로, 전주시와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사례 1) **전주-영국항공-전주국제영화제 상호홍보**로 매년 9월 세계 전노선에 전주시 홍보영상 및 영화제 단편영화 상영 등(2017~)

사례 2) 주한스페인대사관 한국-스페인 수교70주년(2020) 전주시 측에 공공외교 행사 아이디어 제안요청 등

□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타 지역 방문객 및 관광객 유입

○ 전주=전통문화도시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여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 특히, 타도시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구성 및 아티스트 초청 등을 통해 각 분야에 관심있는 **매니아층들의 전주방문 유도**

사례) 전주스페인문화주간 스페인영화페스티벌('19.6월) 시, 국내미개봉작 상영으로 전국의 **스페인영화 마니아층 전주방문 유도**

사례) 세계적인 우쿨렐레, 플라멩코 등 아티스트 초청으로 관심있는 커뮤니티 대거방문

주요 파트너국 의견

◇ "전주시의 문화적 자긍심에서 나온 타 문화 포용사례"<주한미국대사>

◇ "탁월한 사업추진으로 스페인문화를 전주에 알릴 수 있었던 기회로, 모든분야에 있어 양국관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의심치 않음"<주한스페인대사>

Ⅵ. 향후발전방향

□ 각 국가 클럽 등 커뮤니티 구성

○ 사업 추진 전, 파트너국가와 관련있는 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클럽 구성으로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참여강화

○ 이들을 활용한 홍보추진으로 참여율 극대화 기대

□ 전주 예술가 및 문화인들의 해외진출 무대마련

○ 각 국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 추진으로 전주시 문화계 인사들의 해외진출 무대 마련 및 수교기념일 등 시 측의 참여 적극 활용

□ 전주명예시민증 수여로 지속적인 홍보대사 역할기대

○ 각 국 대사 및 아티스트 등 사업 참여자들에게 전주명예시민증 수여로 전주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역할 기대

□ 세계적인 아티스트, 학자, 전문가 초청을 통한 홍보협업 강화

○ 영국 아티스트 리치맥코어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을 초청, 협업을 통한 글로벌브랜드 강화 기회 확대

붙임1 **추진결과 사진**

2016 프랑스문화주간







「CMBV 내한공연_샤르팡티에의 신성한 이야기」(5.12(목) 19:30-21:30/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한-불 자수교류전 : 생활 속의 자수소품 전」(5.6(금)-15(일)/한국전통문화전당 온브랜드관)




「프랑스 동화여행 · 감성교육 특강」(5.13(금) 10:00-12:00/진흥원1층 대강당)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5.11(수) 18:00-20:00/국제한식조리학교 도리상영)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UN프랑스대대」(5.6(금)-12(목)/여명카메라박물관)

2017 영국문화주간



「더 힐 하우스 : 바퀴 안의 연인의 삶과 여정」/5. 11(목) 15:00/18:30/한옥마을 문화광장



「페이퍼 커팅아트로 전 세계 랜드마크를 변화시키다」/5.10(수)-14(일)/교동아트





「영화로 만나는 제인 오스틴」/ 5. 11(목) 17:00~20:00/여명 카메라박물관









틀러 트리오내한「영국의 재즈, 한 걸음 더 가까이」/ 5.12(금) 18:00~19:30/등남문 광장

2018 미국문화주간



오프닝리셉션 「미국을 경험하다」/8.6(월) 18:00/국립무형유산원







프리티빅무브먼트 「공연 및 워크숍」/8.9(목) 18:00/국립무형유산원 등










포토저널리스트 제레미딕 사진전 「더 페이스 오브 어메리카」/8.7~19/전주팔복예술공장





「BBQ&무비나이트」8.7(화) 18:00 교동아트



「미국푸드트럭」8.7~9/전북대등




「호노카&아지타 우쿨렐레 공연」/ 8.8(수) 19:00 소리문화관

2019 스페인문화주간








「스페인문화주간 개막식」/6.14(금) 18:00 전주향교






「전주월드타파스데이」/6.15(토) 세병호 야생화언덕







「스페니쉬재즈와 정통플라멩코 공연」/ 6. 15(토) 18:00 전주소리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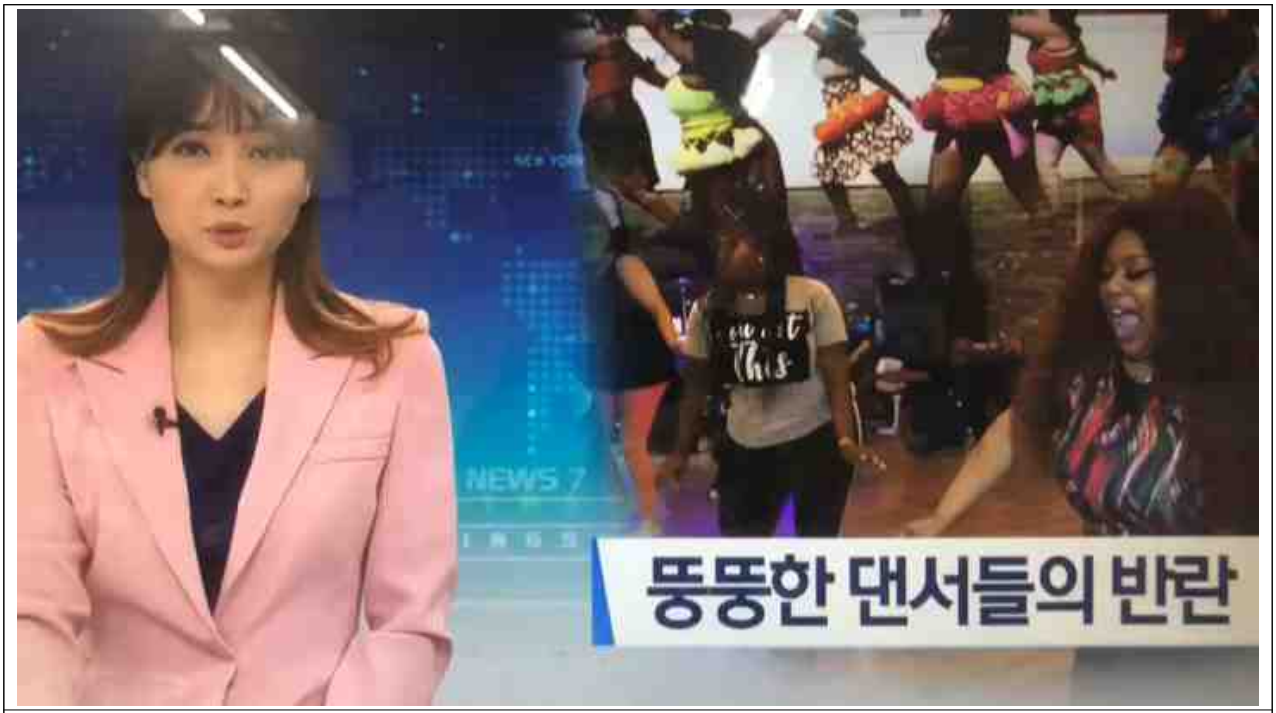



「전주스페인영화페스티벌」/ 6. 15(토)~16(일)




「마누엘 발카셀와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전」/ 6. 15(토)~20(목)

붙임2 **주요 보도자료**



[방송 KBS1] 빅사이즈 댄스팀 '편견 깬다' 2018.8.7



[YTN24] 전주한옥마을 일대 스페인문화주간 시작 2019. 6.14



[방송 MBC] 전주시 스페인문화주간개막’ 2018.6.14



[KBS전주] 투데이 전북 화제 2019.6.17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만나는 프랑스문화

전주시, 내달 6일부터 '전주 프랑스위크' 행사 개최

아주경제 최규은 기자 =문화예술의 꽃, 프랑스의 고품격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다양한 프랑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 프랑스위크(French Week)' 행사를 주최한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자수공예와 사진, 와인, 음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행사로 구성돼 있으며, 프랑스문화를 한국문화의 수도인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주 프랑스위크' 행사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에티엔 롤랑 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수소품전과 사진전, 와인강연, 음악회, 초청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아주경제]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만나는 프랑스문화 2016.4.25

경향신문

프랑스 문화축제 5월6일부터 전주에서 만나요

박용근 기자 ylk21@kyunghyang.com

입력 : 2016.04.26 12:33

전북 전주시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전주 프랑스위크(French Week)' 행사를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마련한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자수공예와 사진, 와인, 음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행사로 구성돼 있다.

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에티엔 롤랑 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수소품전과 사진전, 와인강연, 음악회, 초청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일부터 행사기간 내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수교류전인 '생활 속의 자수소품전'이 열린다. 또, 여명카메라박물관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UN프랑스대대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시전'사진으로

[경향신문] 프랑스문화축제, 5월 6일부터 전주에서 만나요 2016.4.25

SBS CNBC 뉴스 TV프로그램 재테크 교양 이슈+

주요뉴스 29년 만에 ILO 협약 비준 추진...국회 통과 '산넘어 산'

기타

'봄, 프랑스 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전주 프랑

한불수교 130주년 '전주 프랑스 위크' 행사 일환, 양국 식문화 교류

온라인 뉴스팀 입력 2016.05.16.19:01 수정 2016.05.16.19:01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프랑스 문화축제 '전주 프랑스 위크(Jeonju French Week)'의 일환으로, 프랑스 와인과 전주한식을 매칭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11일, 한식 전문학교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레스토랑 도리상영(倒履相迎)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와인소믈리에, 식품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프랑스 와인 5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식 메뉴를 페어링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SBS] '봄,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 전주프랑스위크 성료 2016.5.16

"전주에서 영국문화 만나세요"

등록 :2017-05-10 14:24 수정 :20

전주시, 10~14일 한옥마을에서 세계문화주간 행사 개최
종이 아티스트 리치 맥코어 전시회와 다양한 공연 예정



종이 아티스트인 리치 맥코어의 작품 〈역기드는 자유의 여신상〉. 전주시 제공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영국을 만나세요."

전북 전주시는 신사의 나라 영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인 '2017 전주 세계문화주간-영국'을 10~14일 5일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17~18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전주시와 주한 영국문화원이 공동주관한다. 전주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통 외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세계문화주간 행사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를 진행했다.

'문화강국 영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만나다'를 내세운 이 행사는 종이 아티스트인 리치 맥코어가 초청돼 〈역기드는 자유의 여신상〉과 〈런던아이 자전거〉 등 자신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맥코어는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또 그 작품을 전시한다.

[한겨레] '전주에서 영국문화 만나세요' 2017.5.10

전주 한옥마을 방문한 해리스 주한美대사

조선일보

입력 2018.08.08 03:01



/뉴시스

해리 해리스(앞줄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가 7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018 전주세계문화주간-미국문화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해리스 대사 왼쪽은 김승수 전주시장.

[조선일보] '전주한옥마을 방문한 해리스 주한미대사' 2018.8.8

일요서울 미디어그룹

2019.07.3
대전

정치 경제 사회 뉴스룰리지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피플 라이프/문화

ME > 지역뉴스 > 전북

전주시, 전주시민들이 미국문화 접할 수 있는 시민참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8-08-08 17:49 | 승인 2018.08.08 17:49 | 댓글 0 | 인쇄 글자



[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전주시민들이 미국문화를 직접 경험 수 있는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시는 7일부터 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소리문화관, 혁신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 원에서 2018 전주세계문화주간-미국주간에 참여한 해외 아티스트와 시민들 만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기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2018 세계문화주간-미국주간'은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수도임을 자부하며 오리지널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 들에게 다양한 해외문화를 소개하고, 글로벌 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고 있는 행사다.

[일요서울] '전주시, 전주시민들이 미국문화 접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2018.8.8



金北日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지역 사람들 오피니언 기획 주말

HOME > 문화

[미국문화주간 전주 찾은 '우쿨렐레 듀오' 호노카 & 아지타] 떠오르게 해"

유튜브 수백만뷰 인기... 전 세계 돌며 공연
한국은 처음...청중들 폭발적인 에너지 감동
"다루기 쉽고 재미있는 악기, 당장 배워보세요"

[2018 전주 미국문화주간] 우쿨렐레 듀오 Honoka & Azita

"친절하고 열정적인 전주시민들에게서 하와이 '알로하 정신'을 봤어요"

9일 오후 1시 전주시청 4층 회의실. 미국 하와이 출신의 우쿨렐레 듀오인 호노카 가타야마(20)와 아지타 간칼리(18)는 7·9일 우쿨렐레 워크숍, 8일 우쿨렐레 공연 등 미국문화주간 관련 모든 일정을 마친 뒤였다. 피곤할법한데도 해사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전북일보] '미국문화주간 전주찾은 우쿨렐레 듀오...' 2018.8.9



일요서울 미디어그룹

정치 경제 사회 뉴스브리지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피플 라이프/문

HOME > 지역뉴스 > 전북

30개국 외교사절단 전주 방문...전주한옥마을 등 찾

고용석 기자 | 입력 2018-09-10 17:16 | 승인 2018.09.10 17:16 | 댓글 0

[일요서울 | 전주 고용석 기자] 전 세계 30개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와 총영사 등 외교사절단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방문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외교사절단의 전주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불가리아·이탈리아·멕시코 등 22개 국가 주한대사, 미국·중국·일본 등 8개 국가 총영사 등 30개 주요국가의 외교사절단 50여명이 지난 7일 주한대사 지방시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인 대사·총영사의 이번 전주방문은 지난 5월 전주시가 외교부에 제안한 주한대사 시찰프로그램 유치에 따른 쾌거다.

주한 불가리아 대사를 단장으로 한 외교사절단은 이날 전주역에 도착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을 걸으며 시정철학인 사람·생태·문화가 담긴 전주

[일요서울] '30개국 외교사절단 전주방문 2018.9.10

全北日報

세계 속의 전주로 빛난 2018년

최명국 | 승인 2018.12.23 19:27 | 댓글 0

영국 '더 가디언' 등 해외 유력지서 한국적인 음식, 예술 조명
관광객 증가시민 자긍심 고취 기대,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 중심지 도약을 꿈꾸는 전주시가 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를 통해 세계 속의 전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는 23일 "해외 우호도시와 글로벌기업, 재외공관 등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글로벌 브랜드 확산을 이뤄냈다"밝혔다.

특히 영국의 유력 신문 '더 가디언'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를 집중 조명했고, 호주의 여행전문지인 '트래블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전주를 꼽았다.

러시아 유력지 '콤소몰프라우다' 편집국장은 전주를 미식의 도시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기업 영국항공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주 홍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 화제 단편영화 5편을 전 노선 기내에서 상영했다.

이와 함께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 40명을 전주로 초청해 첫마중길과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에서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한 해외공관 행사에서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 대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홍보했다.

전주시는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내년에 미국 뉴올리언스 및 스페인 도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주미 휴스턴 총영사관과 뉴올리언스으로부터 우호도시 결연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

[전북일보] '세계속의 전주로 빛난 2018년' 2018.12.23

9월 영국항공에 문화도시 전주 띄운다

등록 2017-09-06 11:23 수

9월 말까지 모든 기내에 전주시 홍보영상 상영
"문화 등에 관심있는 여행객 대상이어서 의미 커"



김승수 전주시장과 마누엘 알버레즈(왼쪽)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영국항공 기내에서 '영국항공 전주홍보 론칭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이 9월 한 달 동안 전주의 관광자원을 기내에서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영국항공은 세계 75개국, 200개 도시를 취항하는 영국 민간항공사다.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진행한 영국주간행사에서 영국항공과 상호 홍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9월30일까지 한달간 기내에서 '동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주제로 전주시 홍보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홍보영상은 소리 등의 무형유산, 슬로시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전주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2분 분량의 동영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가 선정한 단편영화 5편도 소개한다. 영화는 <봄동>(감독 채의석), <야간근무>(김정은), <가까이>(배경현), <해영>(김용상), <오늘의 자리>(허지은) 등이다.

인천과 런던을 오가는 노선에는 전주시 홍보 책자도 비치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영국항공 기내에서 '영국항공 전주홍보 론칭 기념행사'를 열었다.

[한겨레 '9월 영국항공에 문화도시 전주 띄운다' 2017.9.6

연합뉴스 인쇄하기 닫기

전주 한옥마을서 '스페인 문화주간'...열정의 일주일

기사입력 2019/06/14 18:00 송고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열정의 스페인 문화를 만끽하고 전북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안녕! 스페인(올라, 에스파냐)' 행사가 14일 한옥마을 일대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전주 한옥마을서 스페인문화주간 열정의 일주일' 2019.6.14

매일일보 창간 13주년 Since 2006 Maeil 매일일보 PREMIUM

매일TV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MI특별기획 MI카드뉴스 전국 기획 오피니

전주시, 스페인 문화 주간 운영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6.05 08:16 | 댓글 0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을 거쳐 올해 4회째를 맞는 스페인 세계문화주간 행사가 전주의 여름을 달군다.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 도시 전주시는 시민들의 문화지평을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 유일의 세계문화주간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주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이는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국내 안팎으로 전주가 주목받는데 힘을 더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클래식 공연, 자수공예, 문학, 교육 등을 선보인 '전주 프랑스 위크'를 시작으로 2017년 신사의 나라 영국의 전시, 공연, 북콘서트를 선보인 '영국문화주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세계문화주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다채로워 지면서 지난해는 미국주간으로 전주의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2016년에는 프랑스와 한국정부부의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프랑스 문화주간을 개최하였고, '2017~2018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해 영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해 미국주간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도시재생지구 일원을 돌아보며 문화로 도시재생을 일군 전주시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전주시는 국제교류 영역을 기존의 단순행정간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사, 국제기구, 외교채널 등을 활용한 문화교류로 확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일보] '전주시, 스페인문화주간 운영' 2019. 6. 5





[에듀클래식] '미국문화, 느끼고, 맛보고, 즐기다' 2018. 9월

/끝.